문화재 방재 연구 韓日 교류 나선다

문화재硏 · 리츠메이칸大 MOU

한국과 일본이 문화재 안전 · 방재 분야 연구와 학술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와 일본 리츠메이칸대(총장 요시다 미키오)는 6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서 문화재 안전방재와 관련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방재와 위기관리 분야에서 학술교류, 공동연구 활동, 조사와 연수를 통한 협력, 관련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연구 협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과 리츠메이칸대 역사도시방재연구소에서 맡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향후 문화재의 안전관리와 재해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문화재 방재전문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 체계를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의심 형성 · 유지, 간화선 수행 성공 요소"

김성욱 교수,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간화선 수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기에 따른 다양한 방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욱 콜럼비아대 교수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간화선은 쉬운 수행법인가'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논문은 제1회 수불학술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6월 29일 시상식과 발표가 진행됐다. 우수상으로는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화두는 타파되는가', 김성은(브리티시 콜럼비아대)의 '간화선이 조선 지식인들의 시 문화에 끼친 영향', 명준 스님(동국대)의 '선종언어 '시심마(是甚麽)'와 '이뭣고' 화두의 관계 정립에 대한 고찰'이 선정 · 수상했다.

김 교수는 불법을 수용 ·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근기'와 간화선의 상관관계를 대혜 종고 · 고봉 원묘 · 보조 지눌 · 태고 보우 · 서산 휴정 등 한국과 중국의 간화선사를 통해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저명 간화선사들은 공통적으로 간화선을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들 선사들은 대부분은 간화선이 상근기의 수행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중 · 하근기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수행방식을 간화선에 적용할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했다. 실제, 태고 보우나 백파 긍선은 간화선 수행방식을 정토교 수행 등에 적용할 것을 권했다. 대혜 종고와 고봉 원묘는 간화선 수행의 어려움을 풀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의심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선사들의 사례는 현재 출재가 수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간화선사들은 모두 의심의 형성과 유지를 수행의 성패 요소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선사들은 특정 화두나 참구 방식에 집착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 현대 수행자들은 정토교와 결합된 간화선 수행이든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화두 참구이든, 자신의 근기나 개성에 맞는 방식으로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1회 수불학술상 시상자와 상을 제정한 수불 스님(사진 가운데)의 모습. 수상자는 사진 왼쪽부터 박재현 동명대 교수, 김성욱 콜럼비아대 교수, 명준 스님(동국대), 김성은(브리티시 콜럼비아대).

선사들 특정 화두에 집착 안해

제1회 수불학술상 최우수 수상

명준 스님 등 3명 우수상 받아

세계 학자, 논문 발표 · 실참 진행

이어 "이런 방식은 의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간화선 수행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수행이 될 것이며, 모든 근기의 사람들이 쉽게 닦을 수 있는 간화선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 수상자 명준 스님의 논문 '선종언어 '시심마(是甚麽)'와 '이뭣고' 화두의 관계 정립에 대한 고찰'도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시심마'는 중국에서는 단순 의문문이지만, 한국의 선가에서는 '이뭣고'로 번역해 화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폈다. 명준 스님은 단순 의문문의 번역이라는 이유로 '이뭣고'를 화두로 보지 않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서로의 번역어로서 인식하는 관점에서 오는 오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뭣고' 화두에 대해서는 '일물(一物)을 참구하는 종류의 화두를 간단히 줄여서 사용하는 화두'이며, '시심마'는 '이뭣고 화두의 '이'에 해당하는 전체 화두의 내용이 생략된 한자어로서 화두의 제목으로 삼아 표기한다' 고 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명준 스님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주요인은 선어록의 원전 언어 습득이 선행되지 못한 까닭"이라며 "현대 중국어의 모체가 되는 당송백화체인 구어체로 이뤄진 선어록을 제대로 해독하자면 중국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제 원전언어를 습득해 스스로의 안목으로서 제대로 된 선어록의 정법안장을 투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의 마크 블럼, 호주의 로버트 셔, 인도의 라트네시 등 저명한 국내외학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학술 발표 이후에는 백담사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간화선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방문해 차담을 갖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티베트대장경역경원 현대 티베트어 강좌

매주 수요일 무료로 진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여름방학을 맞아 '현대티베트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8월23일까지 매주 수요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408호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시간은 오후 1시(기초반), 오후3시(중급반)이다.

강사는 양승규, 정성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맡는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2009년에 설립돼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티베트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문경 대승사 목각탱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선종영가집' 등 보물

청주 비중리 삼존불 보물 지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현재 보물 제575호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 승격을 지정예고했다. 또한 '선종영가집(언해)'과 '재조본 사분율 권47~50', '자치통감 권57~60' 등 3건은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해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며 주로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이 같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에 봉안돼 있으며, 6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탱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보물 제575호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습.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선종영가집(언해)'는 세조가 직접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 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1464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 최고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인출한 '자치통감 권57~60'은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6월 23일 지정했다.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초기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가 크며,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만나다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서 신진학자 논문 발표

신진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6월 2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불교교리부터 역사, 철학, 응용불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불교학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담준 스님(동국대)은 '원효윤리사상 연구'에서 서양의 대표적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윤리를 비교 ·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인간과 동물들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현실적 지침을 공유하는 불교 윤리와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안유숙(동국대)의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장성우(동국대)의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등이 발표됐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그간 불교학계에서는 매년 여러 편의 박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지만 소개할 기회가 적어 반향없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시대의 불교학을 개척하고 있는 신진학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평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사)한국불교학회는 6월 2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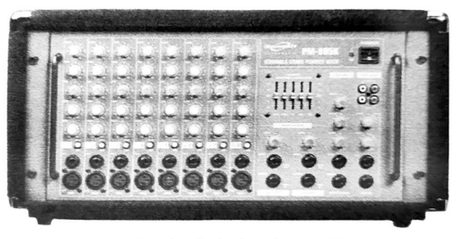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영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